

호소합니다

“희망 젖소나눔운동에 동참합시다”

금번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농가의 심정을 어떠한 위로로 달랠 수 있을까. 우리 낙농동지들은 이번 사태가 결코 살처분 농가의 아픔으로만 국한되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구제역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자기의 현실만을 생각하여 살처분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미 적지 않은 농가가 동참하고 있는 희망젖소 나눔운동을 통해 아픔을 나누면 살처분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줄 것이다.

월간낙농육우 5월호에서는 희망젖소 나눔운동 본부를 발족한 단체장들을 비롯 협회 지회 장들로부터 희망 젖소나눔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본다.

낙농산업 회복 위해 서로 돕는 희망젖소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_ 이승호

희망젖소 나눔운동에 참여합시다 _ 남성우

십시일반(十匙一飯)이 절실한 시기 _ 윤봉중

뜻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 _ 박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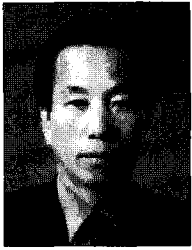
낙농인들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_ 이환수

아픔을 나누는 나눔운동으로 함께 가는 낙농발전 이룩하자 _ 이경화

젖소 나눔운동으로 한지봉 한가족 낙농 만들자 _ 김안석

이웃농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_ 김기태

나눔은 사랑입니다 _ 이백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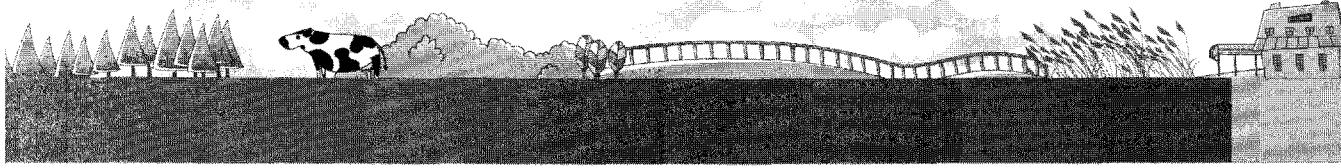
이승호
본회 회장

낙농산업 회복 위해 서로 돕는 희망젖소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낙농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낙농하기 힘든 시기도 없습니다. FTA 수입개방에 도시화로 인한 낙농의 입지난,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낙농의 생산기반 마저 위태로운 가운데, 구제역 사태까지 더해져 낙농산업 전반에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제역 사태는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쉽게 지워지지 못할 정신적인 충격마저 안겨주었습니다. 2010년 초 발생하고도 이후 가을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재차 창궐한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이를 특정 농가들의 문제만으로 방관할 농가는 없을 것입니다. 금번 구제역 사태로 한순간에 키우던 젖소들을 매몰하여 피해를 보게 된 농가들이 640여 농가나 됩니다. 잘 아시듯, 현재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주어지는 지원기준만으로는 이들이 도저히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낙농산업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살처분농가들도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낙농산업의 기반을 떠받치던 낙농 동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유가 조기 현실화를 비롯한 목장경영 안정화 및 원유수급대책 수립 등 당면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누구도 나 아닌 타인을 돌볼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흔히들 위기가 곧 기회라며 무한경쟁 속에 나 외에 타인은 모두 경쟁자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경쟁에서 이탈된 낙오자로 여기고 방관한 채 각자의 생업에만 급급해한다면 우리의 낙농산업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남의 불행이 내일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낙농산업의 현 위기는 결코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당장의 실익을 떠나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갖고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낙농가 여러분!

지금껏 낙농산업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위기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사례들도 많았지만, 때론 담대함을 요하는 문제에 실기(失機)하여 두고두고 후회로 남긴 일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짊어질수록 짐은 가볍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 바로 지금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십시일반의 실천으로써 낙농동지애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주지하시듯, 우리협회는 지난 3월 25일 희망젖소 나눔운동본부를 출범한 이래로 동참의 뜻을 접수받고 있으며 지난 제1회 협회 이사회(4.4)와 2011년도 정기총회(4.18)를 통해 전국의 낙농지도자님들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극히 힘든 처지에서 모아지는 뜻 깊은 운동이기에 희망 젖소 나눔 운동은 분명 대한민국 낙농역사에 기억될 자랑스런 상부상조의 사례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희망 젖소 나눔 운동의 동참을 통해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이 지역과 소속조합을 초월하여 '나'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관심으로 하루속히 살처분농가들이 재기하여 구제역 상흔을 지우고 다 같이 이 낙농산업을 재건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가 여러분의 소중한 결심이 낙농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남 성 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희망젖소 나눔운동에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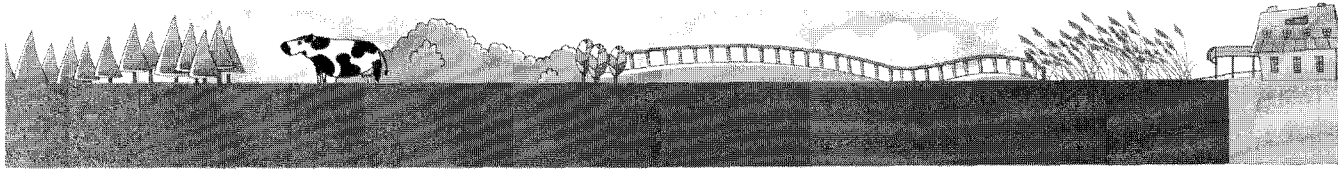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해 젖소 사육두수의 8.5%에 해당하는 36,000여 두가 살처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한·미, 한·EU FTA체결, 국제곡물가의 지속적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낙농업계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협, 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신문이 공동으로 범 낙농인 차원의 순수 자구적 실천 운동인 희망젖소 나눔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운동은 구제역 피해를 조기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기반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수입억제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축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차 실시 중인 희망젖소 나눔운동은 총 5,000두를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추진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희망젖소 나눔운동 본부를 개설하고, 1농가 1두 참여를 목표로 운동참여를 위한 희망 농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축협별로 입식 희망 농가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로 6월 중에 나눔 운동 동참 젖소를 축협단위로 배정하여 배정된 젖소를 축협에서 입식희망농가들에게 통보하고, 농가 간 협의를 통해 배분토록 거래지도와 입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 희망농가가 젖소 정보(월령 등 개체정보) 및 희망 가격을 기재하여 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농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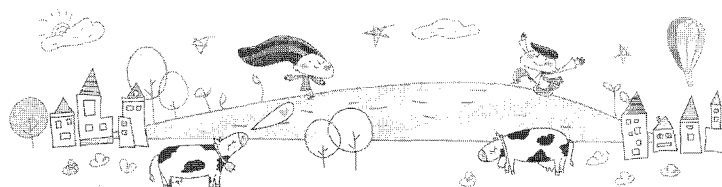
마지막 3단계는 젓소 나눔이 성사되지 못한 참여 젓소에 대하여 그 내역을 인터넷에 일괄 게시함으로써 입식을 희망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많은 낙농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관단체 공동명의 호소문이 전국 6,000여 농가에 이미 발송되었으며, 이 운동을 전문지, 월간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축산신문을 통해 젓소 나눔 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모두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관단체 홈페이지 팝업을 활용하여 동참농가 명단을 업데이트 하며, 축산신문 1면에도 주1~2회 게재하여 보다 많은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낙농인들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유제품을 제공하는 등 국민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제역으로 낙농업을 비롯한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텅 빈 우사를 망연히 바라보며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낙농인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지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희망젓소 나눔운동에 낙농가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봉중
축산신문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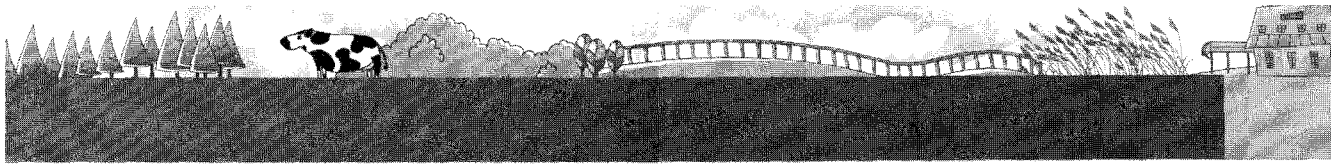
십시일반(十匙一飯)이 절실한 시기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의 한끼 식사가 된다는 십시일반(十匙一飯). 지금 바로 낙농업계에 필요한 사자성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주위 사람들의 기쁜 일은 물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축의금(祝儀金)이나 부조금(扶助金)으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해 왔다. 또 우리 민족은 금전적인 나눔은 물론이거니와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형태로 노동력까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우리의 민족성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그 진가를 발휘해 왔다. 지난 1997년 불어 닥친 IMF사태 당시에는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07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에서도 전 국민이 자원봉사자로 나서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기름을 제거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켰던 기억이 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는 자국민들보다 먼저 일본지진피해 돕기에 나서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민들의 나눔 정신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웃이 어렵거나 기쁠 때마다 함께 하는 민족이다.

이번 구제역도 피해가 큰 만큼 낙농산업이 굳건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의 680여 낙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3만6천여두의 젖소가 매몰 처분됨에 따라 농가수로는 10명 중 1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젖소는 100마리 중 8마리가 없어졌다. 특히 지금 낙농산업은 구제역 뿐만 아니라 FTA, 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내에 유제품 소비량은 우리의 주식량인 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낙농산업이 갈수록 위축될 경우 늘어나는 유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



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을 크게 늘렸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구제역으로 인해 부족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량을 늘리려고 하자 국제 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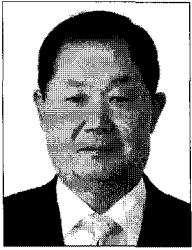
원유(原油)는 단순히 먹는 우유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다. 원유(原油)는 먹는 우유를 시작해 제과, 제빵에 없어서는 안 될 원료이며 치즈, 버터, 분유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 모든 유제품을 수입해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기들에게는 특히 지금의 몇 배 수준의 가격을 주더라도 구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식품의 중요한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이러한 낙농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낙농산업은 식량자원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낙농가들의 바람이다. 낙농가들의 이러한 바람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희망젓소나눔운동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우리 스스로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비로소 국내산 우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희망젓소나눔운동을 통해 우리 낙농산업의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





박응규
협회 해태우유연합지회장

뜻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

지난 겨울 103년 만의 혹한의 추위와 영원히 잊지 못할 구제역 방역과의 싸움은 지금도 생각하면 몸서리 쳐진다.

“음메 음메, 꿀꿀.” 살려달라는 절규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들을 하나하나 땅속에 매몰하는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텅 빈 축사를 바라보면서 어느덧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지고 있지 않는가?

2000년도 과주와 비봉지역에 구제역발병 당시 ‘앞으로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은 두 번 다시 우리 축산인들이 겪지 말아야 할텐데’ 하며 몇 번이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면서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과 더불어 축산인들도 하루의 고된 일정이 방역으로 끝내야 하는 일정이 되었다. 우리에게 또 다시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오지 않았는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어제만 해도 우리들과 생업을 같이하던 낙농가 회원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매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슬픈현실을 이제 와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는가?

너무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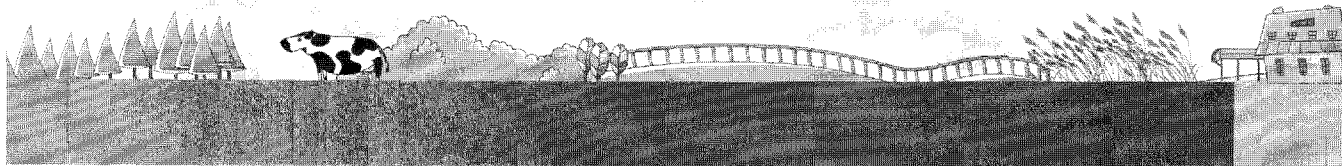
누구의 탓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은 낙농인으로서 뜻과 지혜를 모아 이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웃이 재난을 당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은 온정을 갖고 살아왔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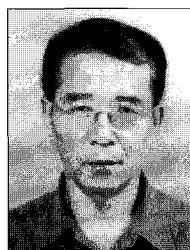
지난 4월4일 협회 이사회에서 임원 및 도지회장님들은 적극적 동참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낙농가 회원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젖소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어려운 현실의 회원농가들을 도와주고 현재 원유가 인상 등 어려운 현실을 다 같이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갑시다. ☺



낙농인들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 환 수
협회 빙그레연합지회장

지난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구제역으로 인하여 시련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군인·자원봉사자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식 같은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살처분하게 되어 망연자실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과주에서는 매몰한 농가나 안한 농가나 마찬가지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전국의 낙농가들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젓소 나눔운동에 동참여 축산인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살아남은 농가들도 뒷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굴삭기 굉음소리를 듣고 수많은 봉사자·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살처분하는 모습을 볼 때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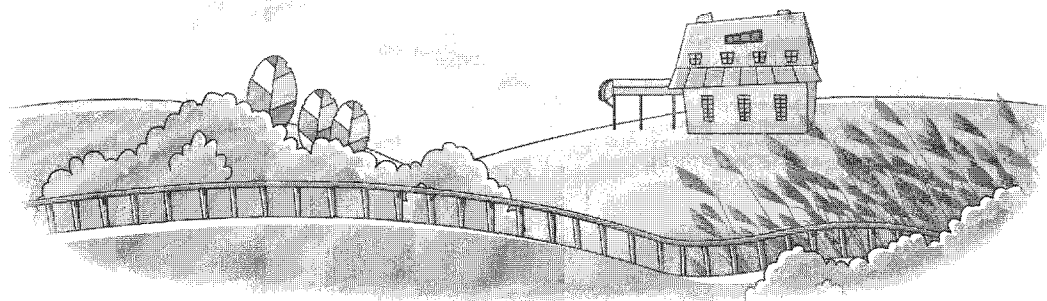
초심으로 돌아가 남의 일이지만 우리가 낙농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를 생각하면서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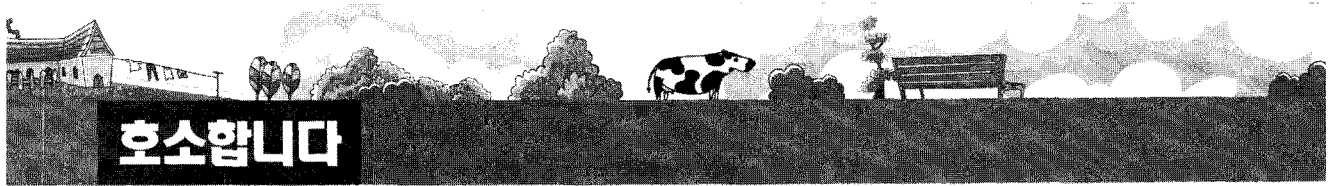
이번 구제역 사태는 내 탓 남의 탓도 아닌 일을 가지고 축산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보상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잣대로 들이대며 낙농축산인들의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낙농인들의 단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낙농인 모두의 젓소나눔운동 참여로 살처분 농가들의 재기를 도와 어려운 낙농산업을 다같이 회복시키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살처분 피해 농가 여러분, 힘 내세요. 낙농 파이팅. ☺





호소합니다



이경화
협회 충남도지회장

아픔을 나누는 나눔운동으로 함께 가는 낙농발전 이룩하자

길고 긴 엄동설한 끝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자식 같이 아끼던 소들을 차디찬 땅에 묻는 것을 지켜보야 했던 매물낙농동지들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봄은 온다는 진리를 믿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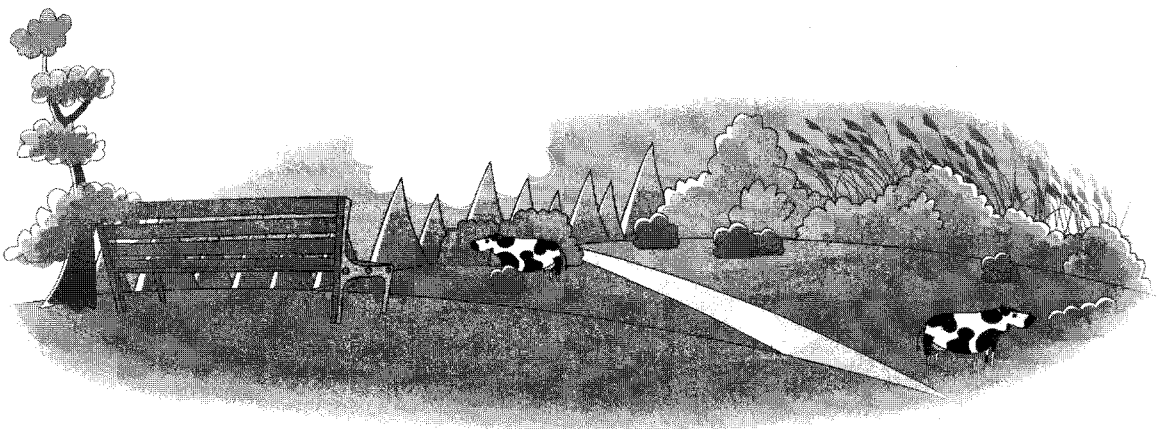
우리 동지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하려는 이 운동에 더 많은 낙농가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낙농 동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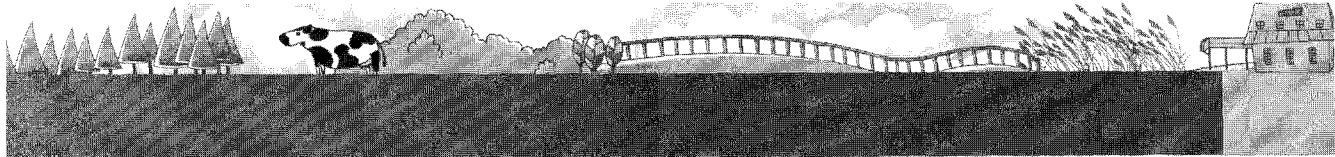
우리의 최대 현안인 원유가 현실화도 살처분 농가의 빠른 입식이 이루어져서 다 함께 하나된 결집력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낙농산업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도 도입우 입식보다는 국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젖소의 입식이 보다 안정적 낙농산업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인의 일인을 위한 일이라 크게 생각하시고 젖소 나눔운동에 전국의 많은 낙농 동지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이 낙농동지들의 단합과 결집된 모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동지들이 하시는 일에 항상 좋은 일만이 있기를 빕니다. ☺





젖소 나눔운동으로 한지붕 한가족 낙농 만들자



김안석
협회 전남도지회장

사랑하는 낙농 가족여러분!

처음 낙농진흥회가 발족되어서 이제는 한 목소리로 낙농가족이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겠구나 하는 기대와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서로 자기 눈앞에 이익을 쫓아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역시 안되는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 분노만 가득하였고 혼자 남은 우리는 우유 수급조절 한다고 멀쩡한 소를 도태하고 빛내서 쿼터 살 때 20% 삭감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값 하느라 빛내고 또 그 빛 상환하라고 시달리지만, 그대로 낙농을 천직으로 알고 낙농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하나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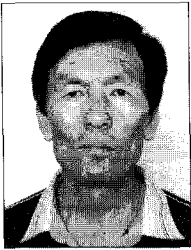
옛 우리 조상님들께서 서로 어려울 때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바로 그 전통이 우리들 가슴 속 깊숙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품앗이 희망 젖소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 가족이요, 형제·자매임을 보여주고 작은 불꽃이 하나가 모여서 큰 불꽃이 된다는 것을 멀지 않은 그날에 꼭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낙농가들은 한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경쟁이 없고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며 사랑하면서 한 목소리가 나왔지요. 그러나 진흥회가 발족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흥회에서 큰 형은 빠져나가고, 또 중간 형도 빠져나가라고 하면서 힘 없는 막내만 진흥회에 남아서 우유 수급 조절 하느라 쿼터 살 때 20% 삭감을 당하면서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 끄끙대는데, 사료구입 자금 상환하라는 통보와 사료값 인상에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린 구제역 살처분한 농가에게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1농가 최소 1마리씩 모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도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한지붕 한가족이 되어서 예전처럼 한목소리로 단결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낙농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김기태
경남도지회장

이웃농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의 젖소들이 안락사 당하는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농가.

매일 매일 동고동락하던 자식 같은 얼룩이.

아침저녁 울어주던 송아지 울음소리 콧전을 울리는데 요란한 기계소리가 끊긴 텅 빈 축사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 짓는 농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매몰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농가.

재기의 희망과 의지를 잃어버린 농가...

모두가 우리 이웃이요, 내 가족입니다.

허전함과 실의에 차있는 이웃농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 주는 젖소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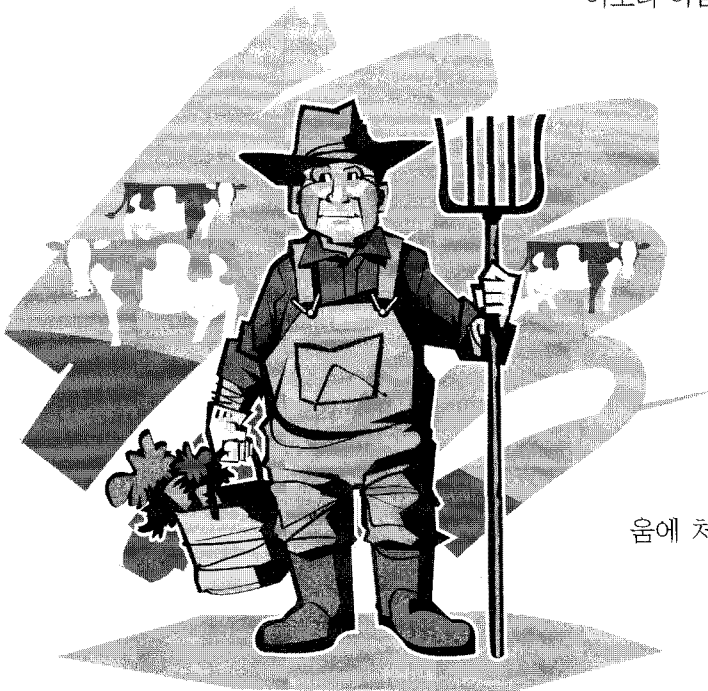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라는 아름다운 전통의 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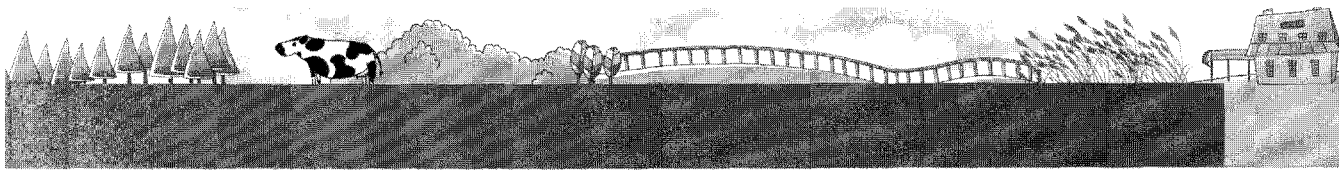
이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쳐다보며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낙농의 큰 울타리를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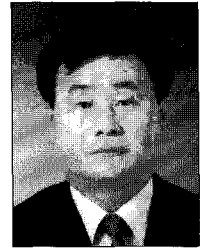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힘이 되고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나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낙농의 미래를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㉞





나눔은 사랑입니다



이백두
협회 부산유연협회장

우리민족은 예부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더 단결하고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발휘했으며 서로 돕고 아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한 단계 성숙한 민족의식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작금의 시운이 우리 낙농업계에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까.

구제역의 발생으로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땅에 묻어야 했던 쓰라린 아픔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옆친 데 텃친 격으로 각종 축산기자재 값과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매일 우유를 짜봤자 생활비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한숨만 쉬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낙농가 동지 여러분!

나눔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낙농가 이웃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십시오. 협회는 협회대로 대정부 설득 및 대화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대 인상 및 사료 자금 장기저리 연장, 유대산정체계 개편 등 산재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낙농육우협회 가족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나눔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따뜻한 봄 향기처럼 포근함이 우리 모두의 목장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